

담배 談論 一考

정인혁*

<차례>

1. 서론
2. 금연론과 담배의 열 가지 해악
3. 흡연 주체의 소외 문제
4. 기호품(嗜好品) 담배의 효용
5. 이옥의 『연경(烟經)』과 주체의 담배담론
6. 결론

<국문초록>

17세기 초반에 전래된 담배는 조선 최고의 기호품이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 흡연이 미치는 건강상의 문제가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금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가 하나의 기호품이며 흡연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호품으로서의 담배와 흡연의 자유로운 선택을 누군가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대적 병리학의 담론 구조 속에서 담배는 악덕의 부정적인 대상이 되었고 기피해야 할 기호가 되었다. 오늘날 흡연은 의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병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의 기호품인 담배가 기호화되는 과정에서 정작 흡연의 주체가 소외된다는 점이다. 흡연 주체의 소외는 흡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흡연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흡연의 주체를 함께 고려할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담배는 흡연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존립하는 기호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우리 문화사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담배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관련 전문서적인 이옥의 『연경』을 중심으로 흡연 관련 옛 문헌들을 통해 담배의 기호품으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하고 흡연문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 담배, 흡연, 이옥, 『연경(烟經)』, 담론, 기호품, 근대적 병리학과 병의 개념

1. 서론

담배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인조 병진년(1616년) 간에 들어왔다.¹⁾ 담배는 들어오자마자 매우 빠른 속도로 유행했다. 17세기 중반 효종(1649~1659년) 4년에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은 남녀를 막론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물며 심지어 4~5세 어린아이들도 담배를 배운다고 적었다.²⁾ 『순조실록』에는 겨우 젓먹이를 면한 어린아이가 횡죽을 피운다고 할 정도였다.³⁾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일개 목동에

1) 이 풀은 병진, 정사 연간부터 바다를 건너 들어와 피우는 자가 있었으나 많지는 않았는데, 신유, 임술년 이래로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 손님을 대하면 번번이 차와 술을 담배로 대신하기 때문에 혹은 ‘연다’라고 하고 혹은 ‘연주’라고도 하였고, 심지어는 종자를 받아서 서로 교역까지 하였다.

此草自丙辰、丁巳年間、越海來、人有服之者、而不至於盛行、辛酉、壬戌以來、無人不服、對客輒代茶飲、或謂之烟茶、或謂之烟酒、至種採相交易。『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8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id/kpa_11608004_001

2) 헨드릭 하멜, 김태진 역, 『하멜표류기』, 서해문집, 2003, 133쪽.

3) 속칭 이른바 남초(南草)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혹은 위(胃)를 조양(調養)하는 데 이롭다고 하고 혹은 담(痰)을 치료하는 데 긴요하다고 하나, 과연 그런지 모르겠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속습(俗習)이 이미 고질이 되어 남녀노소를 논할 것 없이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겨우 젓먹이를 면하면 으레 횡죽(橫竹)으로 피우고 있는데, 세상에서 더러 ‘팔진미(八珍味)는 폐지할 수 있어도 남초는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

俗所謂南草、未知始於何時、而或云利於調胃、或云緊於治痰、未知其果然。而至於近來俗習已痼、無論男女老少、莫不嗜之、纔免孩提、例爲橫竹、世或謂‘八珍可

이르기까지 모두가 좋아한 것이 담배였다.⁴⁾ 18세기 말 정조 때에는 전체 인구 1800만 가운데 360만 명 이상이 담배를 피웠다.⁵⁾ 조선은 담배의 나라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담배는 만병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1962년과 64년,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췌관 담배를 질병의 원인이라 공표하고 1995년 8월 10일, 미국 식품의약국이 담배의 핵심 성분인 니코틴을 ‘중독성 마약으로 규정⁶⁾한 이래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⁷⁾ 등을 유발하는 흡연의 문제는 흡연자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을 유도함과 함께 적극적으로 담배와 흡연의 폐해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3차 금연 홍보 광고에는 흡연자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는 것은 당신이 피우는 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광고에서 제시하는 경계의 대상이 광고의 문구처럼 담배 내지 담배연기인지,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에서 보이듯, 광고 전반에서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

廢, 南草不可廢’ 『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 11월 19일

4) 위로는 공경 사대부부터 아래로는 소 치는 아이까지, 안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밖으로는 오랑캐들까지, 남초를 몹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초란 물건은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맛난 고기와 다름이 없다.

則上自公卿, 下至牧豎, 內自中國, 外至蠻貊, 無有不惑好. 則其爲物也, 無異乎藜藿之悅口也. 이빈국, <南草答辨>, 이옥, 안대회 옮김, 『연경, 담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147~148쪽.

5) 강준만, 『담배의 사회문화사: 정부 권력과 담배 회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인물과 사상사, 2011, 17쪽.

6) 강준만(2011), 같은 책, 132쪽.

7) 황보빈, 『간접흡연과 건강』,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 2002』 발표집, 2002 참조.

라보고, 엘리베이터와 버스에서 혐오스러운 듯 피하는 대상은 ‘나’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문제적이다. 광고 영상에 그려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지각하는 주체는 담배가 아니라 바로 담배를 피우는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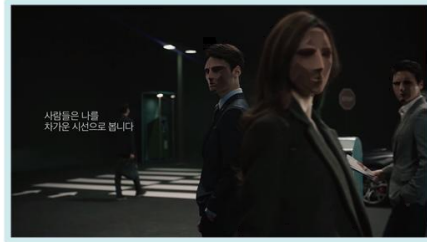


그림1 <“담배”를 향한 차가운 시선, 금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7 3차 금연홍보영상

있거나, 심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아도 엘리베이터나 버스 안에서 피하고 아이들을 숨기려 한다면, 이는 담배 또는 담배연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또는 담배를 피웠던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금연 담론은 광고를 통해 ‘흡연자’를 피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사람들은 흡연자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고, 흡연자로부터 아이를 방어하는 행위를 통해 흡연자를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분할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시선과 응성거림은 흡연자를 배제하는 움직임이다.

흡연과 관련한 현대의 금연 담론에서 가장 먼저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흡연자 자신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만든 금연광고에서조차 흡연자는 도리어 소외되고 배제된다. 이는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학이 도리어 인간을 자신의 신체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담론일 수 있음을 지적한 푸코를 떠오르게 한다. 이는 봉건시대 절대 주권자가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것과 대비하여 19세기 성립된 근대 병리학의 담론이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소위 권력의 ‘생명정치’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⁸⁾ 의학의 목적이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권

력의 통제 하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담론이 되어버린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의학담론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체로부터 소외되고, 도리어 그 의학담론이 인간의 몸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616년경 담배가 전래된 이래로 우리의 삶은 늘 담배와 함께 했다. 그만큼 담배와 흡연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힌 한 문화적 양상이다. 그러므로 담배와 흡연의 문제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사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담배 관련 문헌인 이옥의 『연경(烟經)』⁹⁾과 흡연 관련 옛 문헌들을 통해 담배의 기호품으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하고 흡연문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¹⁰⁾ 흡연이 인간의 신경과민을 해소하는 일종의 보

8) 미셸 푸코, 김상운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년』, 도서출판 난장, 2015, 288~291쪽 참조.

9) 최고의 기호품으로 사랑받았던 담배였지만 서양과 달리 담배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이옥의 『연경』이 거의 유일하다. 하찮게 여겨 연구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달리, 한 가지 사물이라도 모르면 부끄러워할 일이라며 담배에 관해 진지한 자세로 저술했던 이옥의 『연경』은 담배에 관한 농서이면서, 나아가 우리의 흡연문화사를 집약해 놓은 자료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안대희는 이러한 이옥의 『연경』을 비롯하여 한국의 흡연 문화 관련 문헌들을 모으고 번역하였다. 이옥 저, 안대희 역, 『연경, 담배의 모든 것』(휴머니스트, 2008)과 안대희 지음, 『담배고 문화사』(문학동네, 2015)를 참고할 것.

10) 물론 이 시기에 담배와 흡연에 관한 건강상의 담론이 오늘날의 것처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형성된 것은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이현목처럼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들어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담배는 양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일 뿐 오늘날과 같이 치명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문헌들을 오늘날의 것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오늘날의 흡연문화를 바라보는 데 있어 과거의 문헌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담배는 그때에나 지금이나 기호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의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해악의 근원일 뿐이겠지만, 문화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흡연을 하나의 문화로 여겼던 과거의 문헌들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흡연 문화를 바라볼 때 고전의 문헌들을 살피는 것이 의미 있는

상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면 흡연 문화는 그 시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적이고 신경증적인 상태와 그들의 문화를 드러낸다.¹¹⁾ 흡연의 문화를 통해 우리 삶의 상태를 읽을 수 있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2. 금연론과 담배의 열 가지 해악

임금이 직접 담배의 이로움을 논하며 흡연 진작을 위한 책문을 쓰기도 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피웠을 만큼 인기가 있었던 동시에, 조목조목 해악을 들어 담배를 반대했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담배가 진기를 소모시키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해로움이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재촉하는 것이 두 번째 해로움이다. 담배 연기가 옷가지를 더럽게 물들이는 것이 세 번째 해로움이다. 연기와 담뱃진이 의복과 서책을 더럽게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네 번째 해로움이다. 불씨가 ... 크게는 집을 태우고 들판을 태운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해로움이다. 입안에 늘 긴 막대기를 물고 있기에 치아가 일찍 상한다. 간혹 목구멍을 찌르는 불상사도 염려된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해로움이다. 구하는 물건이 작은 것이라 큰 거리낌이 없다보니 위아래나 노소를 따질 것도 없고 친소와 남녀를 따질 것도 없이 서로서로 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 이것이 일곱 번째 해로움이다. ... 언제나 번거로운 한 가지 일이다. 이것이 여덟 번째 해로움이다.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는 행위가 오만한 자세를 조장하고 건방진 태도를 갖게 하는데 다른 음식에 견줄 바가 아니다. ... 이것이 아홉 번째 해로움이다.

이유이다.

11) 볼프강 슈벨부쉬, 이병련·한운석 옮김, 『기호품의 역사-파라다이스, 맛과 이성』, 한마당, 2000, 147쪽.

담배란 항상 입과 손을 씻어야 한다. … 예법에도 어긋나고, 또 용모를 단정히 하라는 가르침에도 소홀해진다. 이것이 열 번째 해로움이다.¹²⁾

담배가 진기(眞氣)를 소모시키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의복과 서책을 더럽히고 화재의 위험과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남녀의 구별과 바른 태도, 예법과 용모를 어지럽히고 사람으로 하여금 번거롭게 하는 등 열 가지의 해로움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대략 범주화하면 첫째, 건강에 관한 문제, 둘째, 청결과 화재 등 환경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 태도와 예법 등, 성정에 관한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건강에 관한 문제는 이현목의 글에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었다.

신체에 해가 되는 것을 시험 삼아 말해보려다. 대추를 입에 물어 생기는 침을 삼키는 것은 양생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지금[흡연 시 : 필자]은 독을 빨고 있는 까닭에 옥 같은 침을 뱉어버리지 않을 수 없다. 유익한 침을 헛되이 낭비하니 어찌 건강에 해롭지 않겠는가? … 치아가 검게 물드는 결과를 면치 못한다. 깨끗하고 하얀 치아를 더럽히니 어찌 안타깝지 않은가? 작게는 날카로운 쇠가 잇몸을 깎아 상처를 내는 폐단이 있고, 크게는 긴 장죽이 목구멍을 찢어 손상시키는 재앙을 낳기도 한다.¹³⁾

12) 余謂烟茶耗眞氣, 害一也, 催眠昏, 害二也, 烟氣薰染衣物, 害三也, 烟液點污衣服書冊, 害四也, 火種恒不離身 …中略… 大則燔屋燎原, 害五也, 口中常啣長枚, 故齒牙早傷, 或有刺喉穴嚙之患, 害六也, 爲其所求者, 小而無嫌, 故上下老小, 親疏男女, 相求不已, 或至取侮媒奸, 害七也, …中略… 行役者, 火具茶匣, 恒作一累, 害八也, 一吸一嘔, 長傲帶慢, 非他飲食之比. …中略… 害九也, 惟其爲物, 常爲口手之役, …中略… 既失執敬之義, 又忽容端之箴, 害十也. 이덕리, <記烟茶>, 이옥, 앞의 책, 167~168쪽.

13) 試以害於身者言之, 含棗而吞涎者, 既是養生之良方, 則今以吮毒之故, 而多不免玉津之吐棄, 浪費膏液, 其不爲妨乎! …中略… 而舉不免玉城之薰染, 污穢潔白, 其不可惜乎! 小則尖金有刮傷上齶之弊, 大則長竹有觸貫中喉之禍者, 何莫非是草之所爲乎? 이현목, <淡巴菰說>, 이옥, 같은 책, 183~184쪽.

침을 삼키는 것이 양생에 도움이 되는데, 담배를 피우면 침을 뱉으니 건강에 좋지 않고 치아가 검게 되고 잇몸을 상하게 하며 목구멍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에 해롭다는 것이다. 대추를 입에 물었다가 생기는 침을 삼키면 몸에 좋다는 전통적인 양생법에 의하면 이때 입안에 고이는 침은 몸에 좋은 것이다. 따라서 좋은 침을 삼키는 것 또한 몸에 좋다. 그런데 담배를 피울 때는 침을 뱉는다. 침을 헛되이 낭비하니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침을 뱉어야 하는 이유는 입 안에 생긴 침이 ‘독’을 빨고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이 담배가 바로 ‘독’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담배의 열 가지 해악에 따른 반대의 주장은 논리적 오류를 드러낸다. 담배를 독으로 전제하고 바라보는 한, 모든 부정적인 일의 원인은 바로 그 독인 담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담배를 ‘독’으로 전제하고 흡연을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원천 봉쇄의 오류요, 순환 논리의 오류에 해당한다. 치아의 불결 문제는 담배를 피워서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더라도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담배만이 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담배의 해로움이라 지목한 두 번째 범주, 곧 청결과 화재, 환경의 문제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물건에 해를 끼치는 점을 들어 말해보려다. … 화로의 재와 부싯들의 돌가루가 뒤섞여 주변을 어지럽히는 것을 금하기 어렵다. … 작게는 맷시 있게 만든 옷과 이불 가지가 담뱃불을 붙이다가 구멍이 나고, 크게는 잘 제본한 서책이 담뱃재로 인해 불이 나서 지전을 사르는 꼴이 된다.¹⁴⁾

14) 試以害於物者言之, …中略… 而爐灰燧石, 錯亂之難禁. … 小則衣衾之好裁者, 生瘡孔於點火, 大則書冊之精粧者, 化紙錢於燃灰者 이현목, 같은 글, 같은 곳.

담배를 피우다가 물건을 더럽히거나 못 쓰게 만드는 일, 나아가 화재로 인하여 서책을 태우고 옷과 이불 등 살림을 태우고 나아가 집을 태우면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큰 문제이다. 하지만 각종 화재 등도 담배에 의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화재가 담배로 인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발생의 오류이자 원인 오판의 오류들이다. 흡연이 해로움을 끼치는 세 번째 범주, 곧 태도와 예법, 사람의 성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농부들이 경작할 때 ... 한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나면 반드시 피우 고서야 생각이 없어지므로 농사에 방해가 되거나 길을 출발하는 것을 막는 따위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 태만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이 풀이다. 심지어는 탕자가 봄나들이를 하고, 음부가 사통하는 짓거리가 대개 모두 담배 한 대가 매개하여 성사된다.¹⁵⁾

서술자에 따르면 담배는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나면 반드시 피워야만 그 생각이 없어지므로 농부들을 태만하게 만든다. <기연다(記烟茶)>에서도 담배를 구하느라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간에 구별이 없어지고, 건방진 태도와 오만한 자세를 갖게 하며, 예법도 어긋나게 하고, 용모도 흐트러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담배는 사람들의 태도와 예법을 어그러뜨리고 성정을 해치는 것이다.

15) 且農夫之於耕耘也, ... 而一欲吸之, 則必吸乃已, 不顧妨農而尼行. ... 中略... 長之以怠緩者, 亦莫非是草之所使. 而甚至於蕩子之尋春, 淫婦之行私, 類皆以一竹草爲先容之蟠木 이현목, 앞의 글, 앞의 책, 183~189쪽.

3. 흡연 주체의 소외 문제

유의해야 할 점은 흡연의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담배와 흡연의 해악은 엄밀히 말해 담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¹⁶⁾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가 담배와 연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에 원인이 꼭 담배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원인이 담배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담론이 담배가 온갖 해악의 근원이라는 나름의 진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담론에서 진리는 바로 담배가 ‘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배는 심지어 태만과 방탕과 음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농부의 태만과 음부의 사통은 실재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태만함과 방탕함, 그리고 음란함의 원인이 흡연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흡연에 대한 그들의 반대 담론의 구조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다.¹⁷⁾ 요컨대 이 텍스트 속에서 담배 내지 흡연은 첫째, 인체의 진기를 소모시키고, 둘째 오염시키고 태움으로써 재산을 소모시키고, 셋째, 태만하게 만들고 예법을 어그러뜨려 인간 사이의 덕을 소모시키는 것이라 정리된다. 그리하여 담배는 금지되어야 할 금기의 기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 속에

16)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담배의 유해함에 관한 가장 객관적인 근거일 텐데, 사실 이 또한 짚고 넘어갈 문제다. 사실 흡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담뱃잎에 0.6%~3% 정도 포함된 니코틴 때문이다. M. A. H. Russell의 실험에 따르면 포유류에게 미치는 각성 효과가 흡연의 습관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위 담배의 중독 기제는 다른 마약류와 같지만 결정적으로 니코틴은 복용량의 증가에 따라 흥분제에서 안정제이자 진통제로 그 성질이 바뀐다. 이점이 담배와 마약이 다른 지점이다. 그래서 러셀은 금해야 할 것은 쾌락 및 자극을 줌으로써 기분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니코틴 공급원으로서의 담배가 아니라 각종 화학 첨가물이 더해진 채 연소 시에 발생하는 연기라고 말한다.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M.A.H._Russell

17) 홍은영, 「푸코와 우리 시대의 건강 담론 - 의료화 현상과 관련하여」, 『철학연구』 제 50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192쪽.

서 담배의 해로움은 진리가 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흡연에 관한 혐오스러운 표현은 반복, 강화되면서 유포된다. 이현목, 황인기, 이원진, 이익, 윤기, 안민수, 홍직필 등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담배의 유해함이 모두 유사하다.¹⁸⁾ 담배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가 하나의 담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흡연에 대한 그들 나름의 기준이 되는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흡연은 부정적이라는 인식 구조 내에서 진리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들에게 흡연은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세운 나름의 기준에 흡연이 부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남녀와 노소, 귀천에 따라 엄격히 구별되던 조선사회에서 이러한 흡연의 행위는 그 관계의 질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무법의 상징이었다.

오늘날 세상에서 어른과 어린이의 윤리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질서가 모조리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담배에 있다. …중략… 하늘이 장차 담배를 통해 어른과 어린이,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등급을 무너뜨리고 뒤섞어 뒤죽박죽의 세계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지 모르겠다.²⁰⁾

이는 근대적 병리학이 ‘세균’을 발견하고 병을 대상화함으로써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인간 사회의 다양한 층위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낸 것과 같

18) 이덕리의 『기연다』에 기술된 담배의 해로움 열 가지가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안대희 (2015), 앞의 책, 221쪽.

19) 홍은영(2014), 같은 글, 194쪽.

20) 今世長幼之倫, 尊卑之序, 所以掃地盡者, 惡乎在? 在南草. … 吾未知天意將以南草壞滅了長幼尊卑之等而混淆, 爲罔圖世界耶. 윤기, <論長幼尊卑之壞於南草>, 이옥, 앞의 책, 202쪽.

다. 근대적 병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의학담론에서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불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래서 불결한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면서, 그 틀을 벗어나는 모든 개체들을 쓸모없고, 위험하며, 악한 존재들로 규정하는 권력의 주체가 만들어졌다.²¹⁾ 이와 같은 논리로 보면 흡연은 유교적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해로운 행위로 규정되었다. 연기와 침과 풍초와 냄새가 뒤섞인 공간과 함께 담배 피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병자, 불결한 사람, 정상을 벗어난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간주된 이들은 하나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흡연자들이 ‘독’임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피우는 이유 역시 관심 밖이다. 담배에 관한 담론에서 정작 흡연의 주체들이 소외되는 것이다. 도리어 그들은 담론 생산 주체이자 권력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독’을 씹는 태만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자들로 표현된다. 전술한 바, 근대적 병리학에서 ‘세균’을 병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신체를 ‘계산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기계론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²²⁾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근대적 병리학이 개인의 몸을 의사나 약사, 보험제도 등 소위 임상의학에 기초한 ‘국가의료시스템’에 맡겨 버림으로써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를 야기했던 것과 같이 금연의 담론 역시 흡연의 주체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²³⁾ 나아가 취향

21) 고미숙, 『위생의 시대 : 병리학과 근대적 신체의 탄생』, 북드라망, 2014, 36쪽.

22) 고미숙(2014), 같은 책, 23~33쪽 참조.

23) 근대적 병리학의 시선은 개인의 신체에 대해 편집자가 아니라, 그 신체에 관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것이다. 타인의 신체에 있어 주체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고미숙(2014), 같은 책, 56~61쪽 참조.

의 문제,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고, 심지어 규칙으로 금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개인의 기호(嗜好)의 문제가 사회적이고 법칙적인 기호의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 속에서 담배는 금기의 ‘기호(記號)’가 되었다. 금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틀린’ 것으로 인식됨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다.

4. 기호품(嗜好品) 담배의 효용

이옥은 <연경>에서 담배의 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담배의 쓰임새

첫째, 밥 한 사발을 배불리 먹은 뒤에는 입에 마늘 냄새와 비린내가 남아 있다. 그때 바로 한 대를 피우면 위가 편해지고 비위가 회복된다.

둘째, 아침 일찍 일어나 미쳐 양치질을 하지 않아서 목에 가래가 끓고 침이 텅텅하다. 그때, 바로 한 대를 피우면 씻은 듯 가신다.

셋째, 시름은 많고 생각은 어지러우며, 하릴없이 무료하게 지낸다. 그때 천천히 한 대를 피우면 술을 마셔 가슴을 씻은 듯하다.

넷째,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간에 열이 나고 폐가 답답하다. 그때, 서둘러 한 대를 피우면 답답한 기운이 그대로 풀린다.

다섯째, 큰 추위가 찾아와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려 수염에도 얼음이 맺히고 입술이 뻣뻣하다. 그때, 몇 대를 연거푸 피우면 뜨거운 탕을 마신 것보다 낫다.

여섯째, 큰비가 내려 길에는 물이 넘치고 습기로 눅눅하여 자리와 옷에는 곰팡이가 핀다. 그때, 여러 대를 피우면 기분이 밝아져서 좋다.

일곱째, 시구를 생각하느라고 수염을 비비 꼬고 붓을 물어뜯는다. 그때, 특별히 한 대를 피우면 피어오르는 연기를 따라 시가 절로 나온다.²⁴⁾

애연가로 유명했던 정조 또한 책문을 통해 담배의 효능을 설파하고 당대 금연론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 역시 흡연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효용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 풀은 맛은 제호를 깔보고, 향기는 난초를 알본다. 술과 견주어볼 때, ...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선왕이 말씀하신 아취가 있다. 차와 견주어볼 때, ... 병을 즉시 낮게 하는 선가의 효험이 있다. ... 이 풀이 아니면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하고, ... 이 풀이 아니면 꼭 막힌 심정을 뚫어주지 못한다. ... 한담(寒痰)의 응결도 이 풀의 덕을 입으면 풀려 없어지므로 백매의 약효도 이보다 못하다. ...중략... 나는 젊어서부터 다른 기호는 없이 오로지 책 보는 고질병만을 갖고 있다. 연구하고 탐색하느라 심신에 피로가 쌓여 수십 년을 보냈다. 그로 인해 병이 생겨 마침내 가슴속이 언제나 꼭 막혔기에 꼬박 새우기도 하였다. 왕좌에 오른 뒤로 책을 보던 고질병을 모두 정무로 옮겨 일하다보니 병증이 더욱 심해졌다. ...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오로지 이 남령초에서만 도움을 얻었다. 불기운으로 한담을 공격하자 가슴에 막힌 것이 저절로 사라졌고 ... 정사의 잘잘못을 고민할 때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을 청명하게 비춰보고 요점을 잡아낸 것도 그 힘이고, 원고의 가부를 수정하고자 깎고 자르는 고민을 할 때 고르게 저울질하여 내어놓게 만든 것도 그 힘이다.²⁵⁾

24) 一 烟用, 一, 飽喫孟飯, 口餘葷腥, 卽進一杯, 胃安脾醒. 二, 早起未嗽, 痰噎津濁, 卽進一杯, 滌然如濯. 三, 愁多思煩, 無賴莫聊, 余進一杯, 如酒以澆. 四, 飲酒旣多, 肝熱肺懣, 快進一杯, 鬱氣隨歎. 五, 大寒氷雪, 鬚珠唇強, 連進數杯, 勝服熱湯. 六, 大雨潦溼, 席茵衣花, 恒進數杯, 氣燦而嘉. 七, 思詩軌軋, 撚髭咬筆, 特進一杯, 詩從烟出. 이옥, 앞의 책, 104~106쪽.

25) 味輕醜醜, 香薄蘭芷. 比之於酒, ... 而有先王合歡之趣. 比之於此, ... 而有仙家卽愈之效. ... 非此, 不能導其闕. ... 非此, 不能疏其壅. ... 中略... 醫門寒痰之結, 賴以融化, 而白梅風斯下焉. ... 中略... 予自少無他癖, 惟癖於看書, 研究耽蹟, 積勞心體, 數十年中之祟, 遂至於膈常滯而夜或徹. 及夫臨御以來, 看書之癖, 一移之機務之間, 爲祟滋多, 喫著檳藿, 計以劬包, 求藥百方. 惟得力於是草, 火氣攻痰,

백약이 무효였던 정조의 답답한 심정을 뚫어주고 정사의 고민을 해소 시켜주며 글쓰기의 막막함을 해결해주었던 것이 담배였다. 이러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흡연의 효용은 이옥의 『남령전』에서 다음과 같이 형상화된다. 담배는 마음의 가장 큰 적 ‘근심’을 물리치는 공을 세운다.

천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32년 쯤 되는 해 여름 6월의 일이다. 장맛비가 크게 내리더니 달을 넘기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신령 세계[靈臺:마음]의 적인 추심(秋心)이 군사를 동원하여 난을 일으켜 황경막 현과 배꼽 고을 등지를 연달아 함락시켰다.²⁶⁾

마음을 다스리는 천군에게 가장 큰 적은 추심이다. 추심은 곧 근심²⁷⁾인데 이를 물리쳐 마음 세계를 안정시킨 1등 공신이 바로 담배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의 효능은 상한 감정을 돕는 것이요, 정신을 맑게 하여 집중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효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이옥은 담배가 맛있는 때를 다섯 가지로 적고 나서 덧붙이길, ‘이 모든 경우는 당해본 자만이 알리라’고 하였다.²⁸⁾ 이는 다시 말해 직접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요, 또 한다고 모두가 아는 것도 아니며, 느끼는 각 주체가 제각각 알 수 있다는 것이니,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가 맛있다고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호품 담배인 것이다.

而膈滯自消，… 沈喑於彌綸之得失，則筌錯之擾，清鑑以操要者，其力也。推敲於丹鉛之甲乙，則鏃劇之煩，平衡以秤出者，其力也。 정조, <南靈草策問>. 이옥, 같은 책, 153~156쪽.

26) 天君御國之三十二年夏六月，大霖雨，踰月不止。於是，靈臺賊秋心，起兵作亂，連陷鬲縣，齊州等地。 이옥, <南靈傳>, 앞의 책, 134쪽.

27) 秋心은 근심 수(愁)의 파자(破字)

28) 이옥, 앞의 책, 111쪽.

결국 흡연의 문제에서 결코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담배, 흡연으로부터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효용을 느끼는 흡연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담배가 ‘기호품’임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고질병이 될 정도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담배와 흡연을 싫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싫어할 수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피울 수 있어야 한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듯이,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금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기호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담배가 인류사회에서 기호품으로 사랑받게 된 데에는 그 독특한 향과 맛도 한몫 했겠지만, 니코틴이라는 알칼로이드의 도취제로서의 효과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흡연을 논할 때에는 삶과 환경이 초래한 인간의 신경과민, 곧 일상의 답답함과 쓸쓸함, 노동의 고단함과 수고로움, 대인 관계의 서먹함 등을 보상해주는 기제였음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쉽게 말해 흡연이야말로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 가장 값싸고 좋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동반자였던 것이다. 정조의 울울함을 해소해주었던 것도 담배였던 것이다. 또 조수삼의 글에서 주인공이 악당에 의해 고난을 겪고 실의에 빠진 대목에서 현실과 이야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전기수를 찢러 죽었던 사건이 담배 가게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²⁹⁾ 책을 사서 볼 수 경제적 여유도 없고, 막상 문자도 해독하지 못하는 이에게 전기수의 영웅 이야기는 삶의 고단함을 잠시라도 잊는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탐학한 관리를 혼내주고 사회를 살기 좋게 만드는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우던 담배 한 모금은 큰 위로였을 것이다.

담배의 확산이 전쟁을 논외로 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³⁰⁾, 죽음

29) 조수삼, <傳奇叟>, 박운원·박세영 옮김, 『이야기책 읽어주는 노인』, 보리, 2005, 171~172쪽.

의 공포를 견디고 삶의 긴장과 고달픔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담배 한 개비는 전쟁하듯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끊을 수 없는 친구인 것이다. 이들에게 담배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그것만의 맛이 있는 기호품이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양식이다. 그들에게 담배를 신체와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의학적 접근은 무의미하다.

5. 이옥의 『연경』과 주체의 담배담론

더욱이 담배는 단순히 입의 심심함을 달래는 단순한 기호품에 머물렀던 것만도 아니었다. 때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상징물이기도 했다. 이때 담배는 그것을 피우는 사람의 의지와 신념을 드러내는 일종의 매개체가 된다. 담배가 오랫동안 가부장제 사회의 상징이었던 서양에서 19세기 여성의 흡연은 여성 해방 운동의 상징이었다. 조르주 상드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보란 듯이 담배를 피웠다. 이때 담배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신념, 그리고 동지애를 북돋우는 데에 일조하였다.³¹⁾ 이와 같은 문화적 관점에서 담배는 단순한 작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

30) 담배와 흡연이 주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은 국가 권력이 인정했던 것이 아닐까. 엄격하게 의무 복무 제도를 고집해온 국가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랜 기간 군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군용담배를 지급했던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리처드 클라인이 언급했듯, 담배는 전쟁, 군인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을 잊는 데에 담배가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비록 직접적인 전투는 없을지라도 억압적인 군대 문화가 주는 심리적 압박을 이완시켜주고 힘든 훈련과 작업에 지친 심신을 달래는데 담배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준만(2011), 앞의 책, 46쪽 참조.

31) 볼프강 슈벨부쉬(2000), 앞의 책, 138쪽.

이 아니며 흡연은 단순히 그 맛과 향을 즐기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흡연을 단순히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행위에 차원에 가둘 수 없는 것이다. 몸에 나쁜 것을 알더라도 흡연자들에게 담배가 몸의 일부, 나아가 정신적인 일부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³²⁾ 이옥은 이러한 담배의 존재 의의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 이옥의 『연경』은 이렇게 담배와 흡연을 하나의 문화적 양식으로 인정한 결과물인 것이다.

서울 사는 귀족집 자제들은 그저 담배를 피울 줄만 알지, 담배씨를 뿌리고 있을 거두며 뿌리를 복돋고 키우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전혀 모른다. 그러고서야 옥같이 귀한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곡식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어려움을 모르는 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³³⁾

누구나 담배를 좋아했고 그 담배와 관련한 것들로 자신의 위세를 뽐내면서도 정작 담배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은 피울 줄만 아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앎을 추동한다. 진정 좋아하면 알고자 한다.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거나,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상을 소비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주체가 대상을 객체화하지 않을 때, 그 대상은 자신을 사랑하는 주체를 반영한다. 흡연의 문화는 곧

32) 강준만은 ‘담배는 선천적인 특성보다 관측에 의해 의미가 정의된다’고 했던 엘런 브랜트의 견해를 인용하여 애연가들이 담배에 대해 나름대로 갖고 있는 확신이 ‘담배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정부와 거대 기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담배소비세와 담배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핀 점에서는 매우 시사적이지만, 거시적인 측면에만 치중한 결과, 정작 담배를 피우는 개인의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강준만(2011), 앞의 책, 21쪽 참조

33) 京華貴游子弟，只知烟爲可吃，不知烟之所以種獲培植者爲如何，則亦何異乎飽喫玉食而不知稼穡之艱難者歟! 이옥, 앞의 책, 41쪽.

그 향유 주체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담배를 사랑하는 주체는 사랑하는 대상인 담배를 함부로 피우지 않는다. 누구보다 애연가였던 이옥이 흡연 시 담배 피는 법, 예절에 대해 잊지 않고 강조했다던 이유가 그것이다.³⁴⁾

이옥이 담배라는 기호품을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담배라는 기호품, 흡연 문화를 정리한 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흡연의 문화가 담배를 피우는 흡연 문화 주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는 단순한 소비의 대상, 유희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반대에 부딪히고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 당연하고 하찮아서 굳이 논의에 대상도 되지 못했던 담배, 그 흡연 문화 속에서 이옥은 살아있는 주체를 발견하는 것이다.

천하의 일은 모두 제각기 격식이 있다. 그 격식을 잃게 되면 바로 어색한

34) 이옥은 흡연을 금해야 할 때와 장소를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옥, 앞의 책, 106~108쪽.

흡연을 금하는 때, 첫째, 어른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둘째, 아들이나 손자가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셋째, 제자가 스승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넷째, 천한 자가 귀한 자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린 자가 어른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여섯째, 제사를 지낼 때 피워서는 안 된다. 일곱째,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혼자 피워서는 안 된다. 여덟째, 다급한 때 피워서는 안 된다. 아홉째, 객단이 들어 신 것을 삼킬 때 피워서는 안 된다. 열째, 몹시 덥고 가물 때 피워서는 안 된다. 열한째, 큰 바람이 불 때 피워서는 안 된다. 열두째, 말 위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열셋째, 이불 위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열넷째, 화약이나 화총 가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열다섯째, 매화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열여섯째, 기침병을 앓는 병자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烟忌 一, 尊前不可, 二, 子孫之父祖前不可, 三, 弟子之函丈前不可, 四, 賤之貴人前不可, 五, 少幼之長老前不可, 六, 祭祀不可, 七, 大衆會, 獨吃不可, 八, 忙急時不可, 九, 病癰吞酸時不可, 十, 赫炎旱日時不可, 十一, 大風時不可, 十二, 馬上不可, 十三, 衣被上不可, 十四, 火藥, 火鎗邊不可, 十五, 梅花前不可, 十六, 病咳喘人前不可.

느낌이 든다. 이제 담배를 피우는 격식을 두고 논해보리라.

지위가 높은 판서나 관찰사, 고을 원님은 남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분들이라, 사령들이 그 앞에 수두룩하다. …중략… 그러면 화문석에 높다랗게 기대앉아 천천히 피워댄다. 이것이 귀격(貴格)이다. …중략… 나이 많은 노인이 … 앉아서도 피우고 누워서도 피우는 등, 자기 편한 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복격(福格)이다. 연소한 낭군이 …중략… 불씨를 담배 중앙에 붙여 입술과 혀를 뺨뺨 빨아 한두 번 피우면 연기가 벌써 입에서 피어나온다. 이것이 묘격(妙格)이다. 어리고 아리따운 미인이 님을 만나 애교를 떨다가 …중략… 앵도 같은 붉은 입술에 바빠 꽃아 물고는 웃으면서 빨아댄다. 이것이艶격(艷格)이다.³⁵⁾

모든 일에는 제각기 격이 있고 모든 격은 나름의 정취가 있다. 누구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일지 모르나 그 흡연에는 귀함이 있고 복이 있으며 묘함과 농염함도 있다. 그리고 그 나름의 격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위가 높은 판서나 관찰사, 고을 원님, 손자를 비롯하여 증손자까지 무릎 위에 앉힌 대갓집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진 어리고 아리따운 여인도 예외가 아니다. 남녀노소 상하빈천을 떠나 누구나 제각기 정취를 지닌 동등한 격식을 만들어 낸다. 동시에 그 각각의 정취를 지닌 격식을 드러내는 모든 주체는 담배 연기 안에서 동등하다. 이옥에게 이 모든 정취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담배 앞에서, 흡연이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들은 그 속에서는 모두가 저마다의 격식을 갖춘 동등한 존재들이다. 임상덕이

35) 九 烟趣, 天下事, 事事皆有其格. 苟失其格, 便覺沒趣. 今若以烟之格論之, 則位高卿宰方伯州牧觀瞻所係, 使令足前 …中略… 高倚花席, 緩緩吸進, 便貴格. 年大老人, …中略… 坐吃臥吃, 從其所安, 便福格. 年少郎君, …中略… 插在烟心, 緊弄唇舌, 一吸再吸, 烟已出口, 便妙格. 天韶佳人, 逢歡撒嬌, …中略… 忙插在櫻紅唇間, 且笑且吸, 便艷格.” 이옥, 앞의 책, 116~119쪽.

<담과고전>에서 의인화한 담배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 것 또한 흡연의 이와 같은 문화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코와 입 따위의 구멍으로 흠어져 들어가 인간의 마음 속 수많은 더러움과 악함을 소멸시킨다. … 담과는 본래 중생에게 베풀고 인도하는 마음을 지녔기에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누구도 가리지 않았다. …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져 마치 이슬을 마신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렇듯이 사람들을 신비하고도 오묘하게 감동시켰다. 아무리 평소에 비구니를 좋아하지 않는 큰 학자나 근엄한 선비라도 담과를 몹시 사랑하게 되었다. 심성을 열어놓고 신명을 통하게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므로 그녀를 선택한 것이다.³⁶⁾

말 그대로 담배 앞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주체들이다. 담배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빈국 또한 담배와의 관계에서 천하 사람들은 모두 똑같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만 천하 사람들이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입으로 좋아하는 풀이다. 그것을 보면 천하 사람들의 입은 똑같은 입이요, 천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다.³⁷⁾

흡연 행위의 자유로움 속에서 저마다의 주체성은 다음의 구절에서 정

36) 散入人鼻口竅穴，消去人心種種穢惡。…中略… 婆業既以施導衆生爲心，凡人之賢愚貴賤，皆不擇，…中略… 然人皆神醒心爽，如吸沆瀣，其感人靈妙如此。雖大儒莊士，素不喜比丘者，往往酷愛婆，蓋其開心性，通神明，最有助，故取之。임상덕, <담과고전>, 이옥, 앞의 책, 142~143쪽.

37) 但惟天下之人心悅之，天下之人口好之，則天下人之口同一口也，天下人之心同一心也。이빈국, <담과고전>, 같은 책, 151쪽.

점을 이룬다. 이옥이 그 많은 담배의 격식, 흡연의 격식 가운데에서도 진 짜라고 말한 진격은 바로 논에서 김을 매던 농부가 잠시 쉬기 위해 피워 무는 담배, 그의 흡연 속에 있다. 흡연의 요체는 마지막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 사람마다 나름의 격식이 있고 그 격식은 모두가 다 나름의 아취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만약 자신과 다르다고 그것에 대해 비아냥거리다면, 그것은 그 멋, 그만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논에서 김을 매는 농부가 김매기를 잠시 쉬고 논두렁 풀밭에 풀썩 앉는다. 브리술을 한 순배 돌리고 나서 맨상투에서 가로 쪼은 곰방대를 뽑아 담배 잎사귀를 둘둘 말아 연통연처럼 만든다. 그것을 대통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대통을 받쳐 잡고 오른손으로는 불을 잡아 담뱃불을 붙인다. 담배 연기가 봉홧불처럼 피어올라 콧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니 이것이 진격(眞格)이다.

사람마다 제각기 나름의 격식이 있고, 격식마다 나름의 아취가 있다. 남이 피우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다면, “그대는 그 멋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일이다.³⁸⁾

누구는 맛이 좋아 피우는데 누군가에게는 좋은 맛도 꿀의 단맛도 아닌 것이다. 결국 이는 개인의 문제이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개인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담배는 기호품이다.

물론 흡연이 개인 및 주변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나아가 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 운동은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이는 국가 전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가운데 자칫 개인의 권리

38) 鋤水農人, 停鋤, 坐稻塍靑州間. 麥酒初巡, 於露鬢上拔出橫簪短竹杯, 捲烟葉, 作烟洞狀, 安在杯上. 左手擎杯, 右手執火而燃之. 烟出如烽, 直衝其鼻, 便眞格. 人各有其格, 格各有其趣, 相如姍之, 曰, “君獨未知其趣耳. 이옥, 앞의 책, 119쪽.

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 계몽주의의 시대에 주권자 또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죽음에 대한 권리’를 밀어내고 ‘삶에 대한 권력’을 통해 인간을 통제했던 것처럼 기호품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밀어내고 금연담뵐이 인간 주체의 ‘삶에 대한 권력’을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³⁹⁾ 여전히 담배가 기호품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6. 결론

어느 순간 금연정책의 담론 속에서 흡연은 치료해야할 병으로 간주되었다. 흡연이 병으로 명명됨으로써 기호론적 체계로 편입되었다.⁴⁰⁾ 담배는 근대적 병리학의 담론 내 세균과 같은 위치에 놓였다. 세균인 담배는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흡연은 주체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건강한 육체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금연담론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건강’이다. 그러나 건강상의

39) 미셸 푸코, 김상운 옮김(2015), 앞의 책, 291쪽 참조

40) 의학적 권위에 의해 ‘병’으로 분류되고 구별되면 그것은 어떤 상태라기보다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병이 되며 본인은 고통스러워도 병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담배 연기는 담배 연기일 뿐이었다. 싫으면 그만 좀 피워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훌어뜨리면 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병균’은 냄새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어떤 대상이 되었다. 여전히 담배 태우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자로 여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병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분류표, 기호론적 체계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처럼 흡연도 동일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가라타니 고진, 『병이라는 의미』,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도서출판 b, 2010, 152쪽, 고미숙(2014), 앞의 책, 29쪽 참조 및 재인용.

문제를 명분으로 하더라도 정신적 만족과 휴식을 주는 데 담배가 다른 어떤 것보다 효용성을 갖고 있다면 담배는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담배를 한 대 피움으로써 잠깐이나마 시름을 덜고 고단함을 잊을 수 있으며 담배 한 가치를 나눔으로써 집단의 유대감을 느끼는 그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대체할 수 있을 때 흡연 인구는 감소될 것이다. 담배가 전래되고 십 년이 채 되지도 않아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담배를 즐겼다는 것은 그만큼 고되고 힘들었던 우리 민족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담배만큼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담배는 서민들이 가장 쉽게 구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심신의 안정과 만족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준 문화적 양식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행위가 축적되어 일정한 양식이 된 문화는 본질적으로 기호적이다. 문화라는 의미망 안에서 인간의 행동은 작은 것 하나에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발산한다. 이 경우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다.⁴¹⁾ 흡연의 문제 역시 담배라는 어떤 작물에 관한 접근이 아니라 담배와 흡연의 주체가 하나가 되는 흡연이라는 행위, 곧 담배라는 매개물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⁴²⁾ 주체를 소외시키고 신체와 병을 분리시키는 근대적 병리학의 폭력적 기호화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흡연 여부를 기준으로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이육이 <연경>에서 역설하고 있듯이, 중요한 것은 흡연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담배, 흡연을 사랑하는 일은 담배에 관한 앎을 전제로 하며, 흡연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담배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이는 담배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41) 클리퍼드 기어츠,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13~16쪽 참조.

42) 클리퍼드 기어츠, 문옥표 옮김(1998), 같은 책, 21쪽.

예절을 엄격히 차려야 할 일체의 장소에서는 안 된다. 화재를 조심해야 할 장소에서는 안 되고, 연기 피우는 것을 꺼리는 곳에서도 안 되며, 발끝이 차여 넘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서도 안 된다.⁴³⁾

다시 말해, 때와 장소,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흡연 행위는 이기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할 때 비로소 담배의 맛과 멋을 아는 애연가일 수 있다. 흡연에 대한 반대론자도, 또 애연가도 흡연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때, 흡연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담배와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 특히 좋아하지도 않는 담배 연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간접흡연의 폐해는 반드시 막아야 할 사회 문제이다. 다만 흡연문화의 전제가 되는 ‘기호품’에 담긴 주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담론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흡연을 근절하려는 시도가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담배와 흡연이 지녀왔던 문화적 의미와 복잡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⁴⁴⁾

여기에 특히 담배라는 기호품을 자유롭게 즐기는 중에도 주체의 자기 소외를 경계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감 있는 자유를 강조하는 이옥의 <연경>은, 비록 시대는 달라졌으나 여전히 담배가 기호품으로 남아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3) 一切嚴禮貌處不可, 慎火患處不可, 妨烟氣處不可, 戒蹻蹻處不可. 이옥, 앞의 책, 108쪽.

44) 조던 굿맨, 이학수 역, 『역사 속의 담배 : 보랏빛 연기가 자아낸 의존의 문화』, 다혜, 2010, 331쪽.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순조실록』

윤기, <論長幼尊卑之壞於南草>

이덕리, <記烟茶>

이빈국, <南草答辯>

이옥, 『烟經』

이옥, <南靈傳>

이현목, <淡巴菰說>

임상덕, <淡婆姑傳>

정조, <南靈草策問>

보건복지부령 제55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2018.2.23. 일부개정

서울시 실외 흡연시설 현황, <http://opengov.seoul.go.kr/data/7746792>

신건웅, [Stop! 간접흡연②] 한 갑당 3300원이 세금인데... 흡연부스·금연정책엔 ‘찜
끔’, 《뉴스1》, 2018년 5월 1일

강준만, 『담배의 사회문화사 : 정부 권력과 담배 회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 인물과 사상사, 2011, 1~247쪽.

고미숙, 『위생의 시대 : 병리학과 근대적 신체의 탄생』, 북드라망, 2014, 1~224쪽.

미셸 푸코, 김상운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
년』, 도처출판 난장, 2015, 1~415쪽.

볼프강 슈벨부쉬, 이병런·한운석 옮김, 『기호품의 역사-파라다이스, 맛과 이성』,
한마당, 2000, 1~263쪽.

신규환, 서홍관, 『조선후기 흡연인구의 확대과정과 흡연문화의 형성』, 『醫史學』 18
권 1호, 대한의사학회, 2001, 23~59쪽.

안대회 지음, 『담바고 문화사』, 문학동네, 2015, 1~477쪽.

이공주, 『흡연권의 규제제도와 적절한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18, 한
국법학회, 2018, 347~368쪽.

이옥, 안대회 옮김, 『연경, 담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1~324쪽.

조던 굿맨, 이학수 역, 『역사 속의 담배 : 보랏빛 연기가 자아낸 의존의 문화』, 다해, 2010, 1~378쪽.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1, 청년사, 2002, 1~276쪽.

클리퍼드 기어즈,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1~540쪽.

헨드릭 하멜, 김태진 역, 『하멜표류기』, 서해문집, 2003, 1~141쪽.

홍은영, 『푸코와 우리 시대의 건강 담론 - 의료화 현상과 관련하여』, 『철학연구』 제50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187~228쪽.

ABSTRACT

A Study on the Discourse of Smoking

Jung, In-hyouk

The cigarette, which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7th century, was the most precious item of personal preference in the Joseon Dynasty of Korea. But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were verified by medical and scientific methods. So the voice for banning smoking is louder.

But the cigarette is an item of personal preference. And smoking is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It is problematic that someone arbitrarily restricts the free choice of cigarettes and cigarettes as culture.

In the discourse structure of modern pathology, tobacco became a negative object and became a symbol to be avoided. In these days, smoking is regarded as the concept of 'illness to be treated' which was established in modern pathology. In the process of cigarette as a personal thing to a social symbol, the problem is that the subject of smoking is neglected from the matter of smoking. Alienating the smoking subject can not solve the problem of smoking. Smoking should be recognized as a culture. And the problem can be solved when considering the subject of smoking. This is because cigarettes are a favorite item that a smoking subject freely chooses.

In this paper, I try to look back on the meaning of smoking culture through the Ok Lee's *Yeongyeong* (烟經) which is a very unique book in our cultural history and old documents related to tobacco.

Key Words tobacco, smoking, Lee Ok, *Yeongyeong* (烟經), discourse, an item of personal preference, modern pathology, disease

논문투고일 : 2018.10.13

심사완료일 : 2018.11.10

게재확정일 : 2018.11.19